

#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 유기적 패턴

51010417  
김옥경

## I. '유기적' 패턴

1. 계획도시와 계획되지 않은 도시

2. 공존과 재현

3. 유기적 패턴의 태동

- 유기체로서의 도시
- 지형의 역할
- 토지분할
- 공동체(시노니즘)
- 법과 사회질서

4. 직선과 곡선 : 여러가지 설계안

- 풍경식 계획 도시의 기원
- 전원도시의 패러다임
- 보존과 역사의 교훈

5. 모더니즘과 풍경식 계획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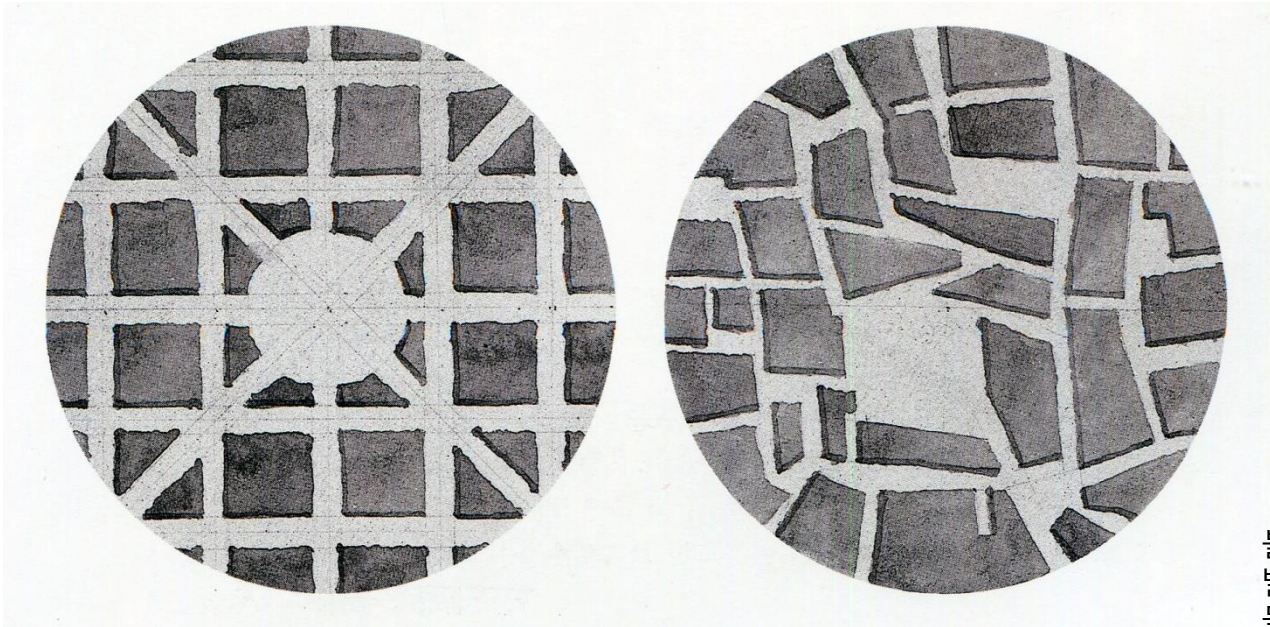
## I 도시형태

### 1. 계획된 또는 설계된 또는 창조된 도시

-어떤 권력이 한순간에 만들어 내며 도시의 패턴이 한번에 만들어져 영원히 유지됨

### 2. 자연발생적인 도시 (자라난, 우연히 생겨난, 생성된 도시)

- 종합계획 無, 시간의 흐름과 땅의 생김새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해 도시를 발전시킨 것으로 추측



불규칙한 기하학적 구성의 자연 발생적인 도시와 질서 있게 만들어진 도시

## I 도시형태

- 예측이 불가능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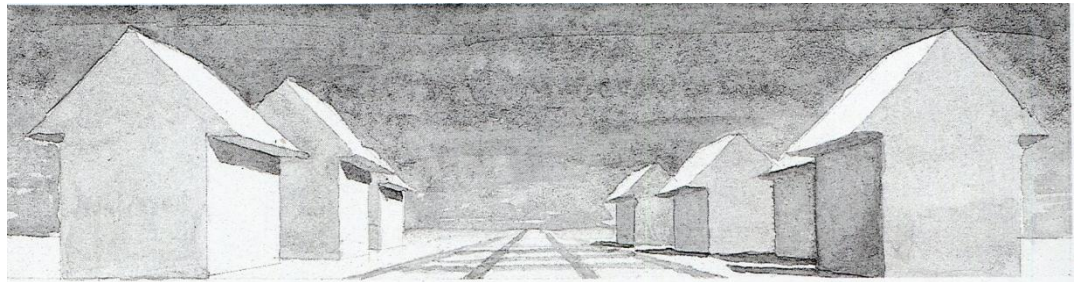
: 건물이 도로선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대지안 어디에 집이 위치해 있는가

- 윌리엄 펜 “집은 경우에 따라 도로선 안이나 도로선에 맞추어 짓도록 하라”

- 18C 바로크 도시 : 가능하면 어디서나 가로변에 들어서는 건물은 대지의 가장 자리에 맞추어서 직선으로 짓고, 건물의 전면이 똑같이 지어지도록 강제함

- 건물 짓는 행위보다 건물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자하는 규정이 먼저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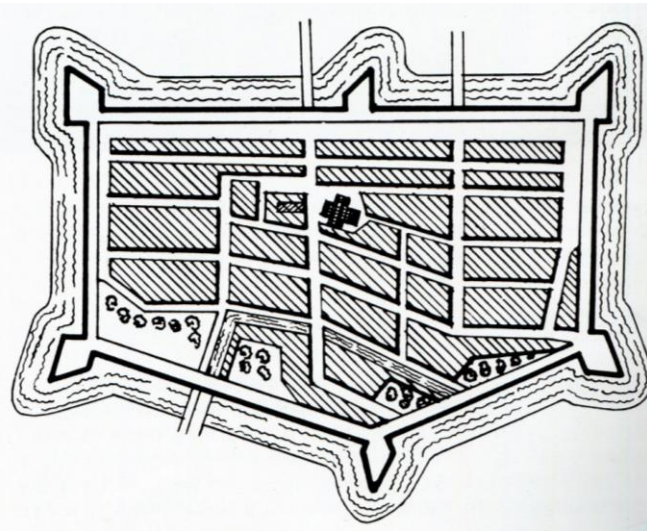
- 건물의 각기 다르게 만들어 마치 자생적인 도시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듯한 아름다운 구성은 만들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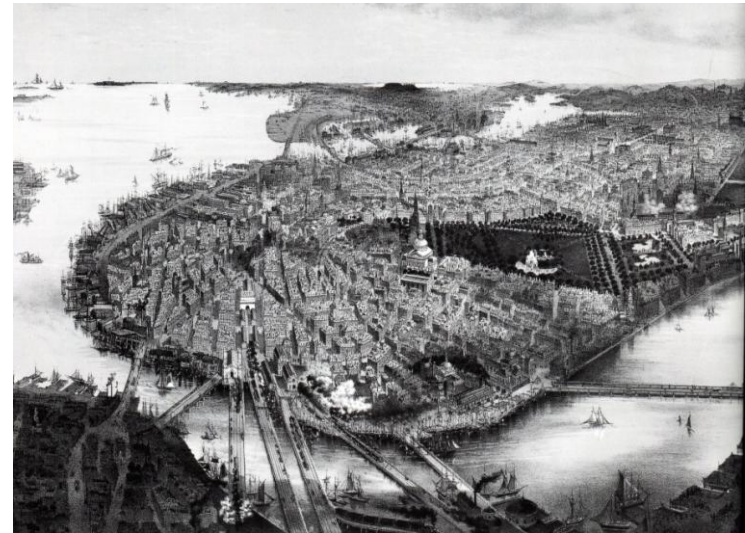
직선도로의 기하학적 규칙성은 획일적으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정한 법에 의해 강화될 수도 있고, 건물의 위치에 따라 흐트러질 수도 있다

### I 도시형태

- 불규칙한 패턴 : 리처드 필스베리가 초기의 펜실베이니아 도시를 분류하면서 사용
  - 제멋대로 인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직선 도로가 잘린 부분이 아무 각도로나 만나기 때문에, 직선부분이 각을 이루는 띠로 자주 끊어지기 때문
- 길이나 다른 선적 요소들이 비뚤어지고 엉망이 된 격자로 보일 정도로 굳어졌을 때 규칙을 따르거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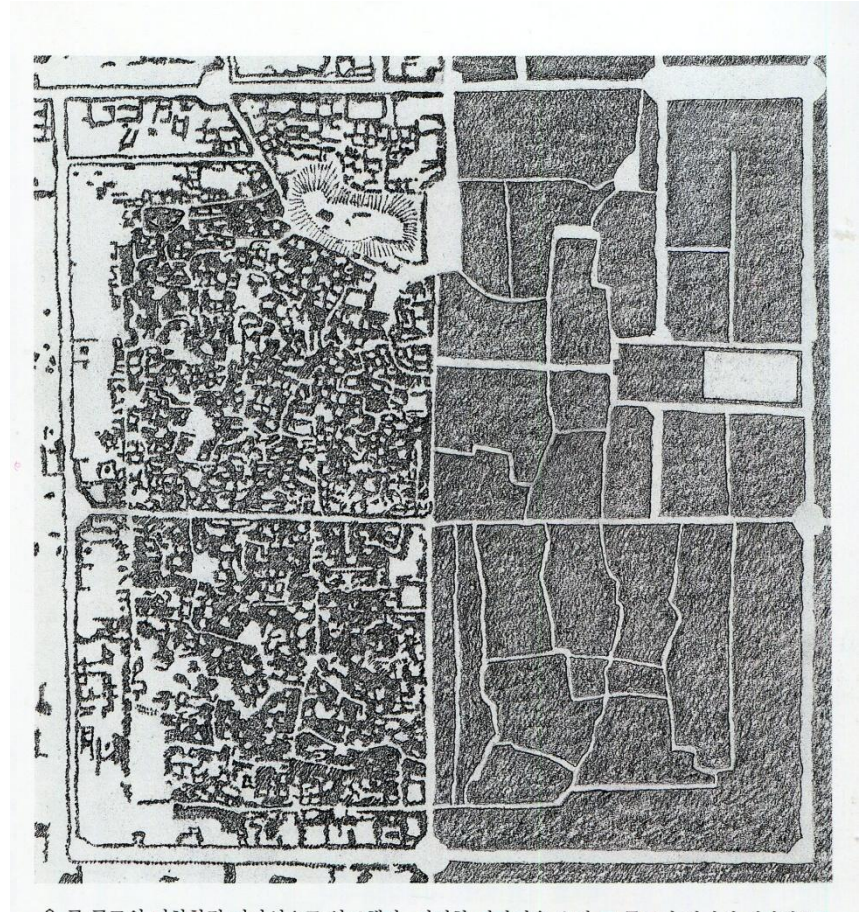


1632년의 나르덴(네덜란드)  
조이데르 해에서 비뚤어진 격자는 전략적으로 17세기 초 방어 초소로 나르덴을 개발



1877년의 보스턴(매사추세츠)  
불규칙적인 개발과 직교형 개발이 뒤섞인 모습이 존 바크만이 그린 도시 전경이 잘 나타나 있음

- 도시계획 구분 : 계획된 것, 유기적인 것
  - 역사 속에서 무작위로 지난 수백년간의 도시계획을 훑어본다면, 기하학에 근거를 둔 도시의 이분법이 쓸모가 있는냐는 질문의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음
- 두 도시의 구성요소가 무관하지 않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한 부분 이상 확장되었을 때, 그 도시를 복잡하게 뒤엉킨 것으로,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의 합으로, 또 그 도시의 원래 역사를 통해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역사 도시와 거대도시 규모의 실제의 모든 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맞물리거나 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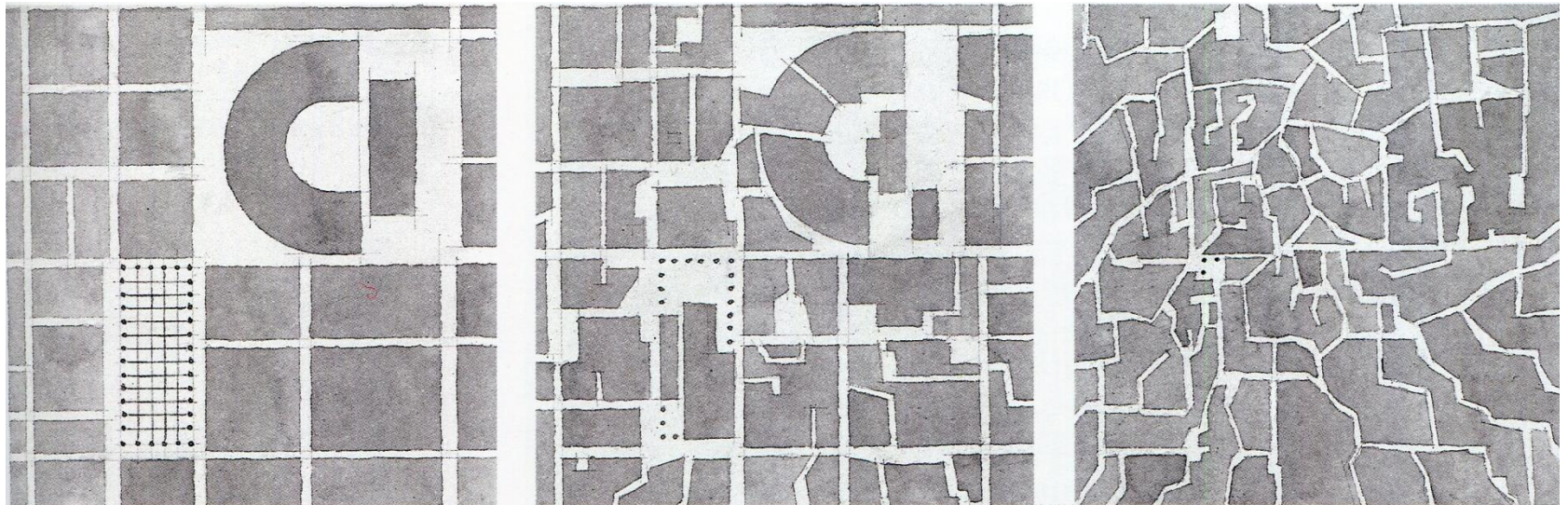
헤라트(아프니가스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평면에서, 도시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가 서로 다른 위계의 도로와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음

- 합리적인 질서가 잡히고 공공행정이 들어서면서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해체 → 이유 3가지

### ① 기하학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로마 시대 이후 도시의 행정규제가 약화되면서 격자로 된 사각형의 블록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내는 일이 자연스러워 졌음
- 옛날 로마의 포룸 주변, 중앙시장과 연결된 동선패턴은 새로운 도시 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화
- 로마 도시의 격자는 포룸과 함께 확실한 두 개의 직교축으로 특징지어짐  
→ 가장 저항이 적은 블록을 가로지르는 것이 재치있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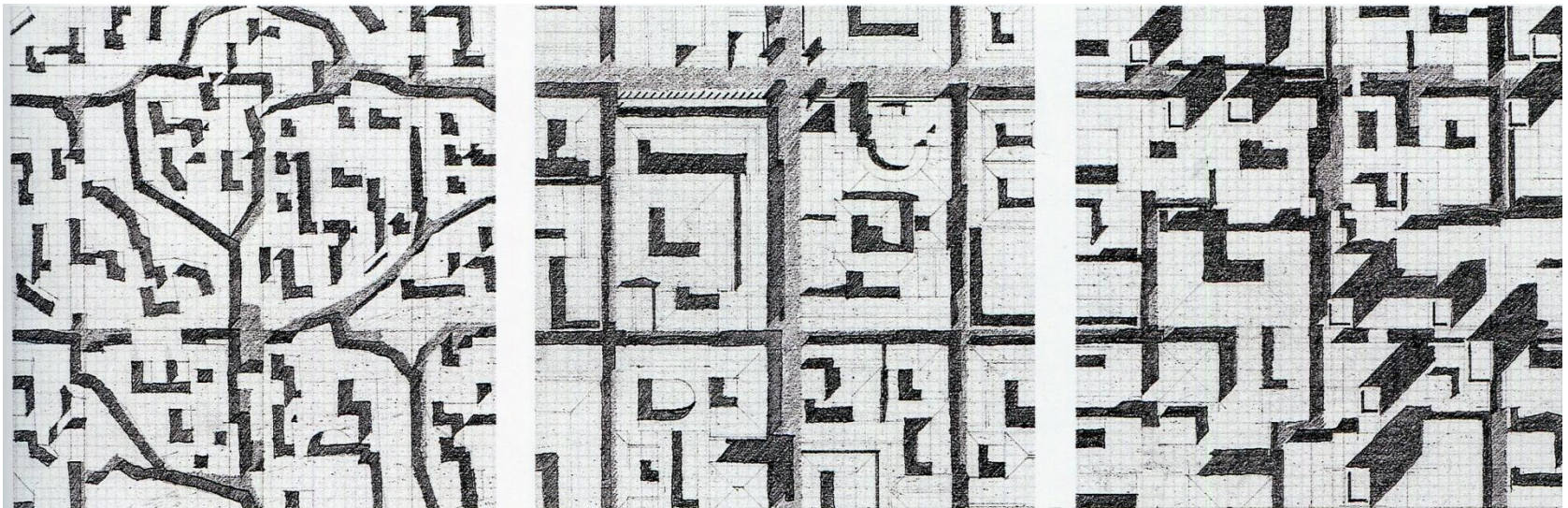


로마 식민 도시의 격자가 점차 이슬람식 도시로 바뀜

- 합리적인 질서가 잡히고 공공행정이 들어서면서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해체 → 이유 3가지

#### ② 블록을 다시 짜는 일

- 로마시대 주거지 - 인슐라, 이슬람 도시는 전혀 다른 주거지 성행
- 로마의 격자도시는 이슬람에 의해 계승, 가로와 빈 공간과 공공 공간은 점차 채워져 그 크기가 줄어들음
- 내부의 연결체계가 밀집된 도시 구조안에 구축
- 중세후기에 새로 생긴 공동체나 자치도시국가를 시험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땅을 분할하여 개방하고,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길과 공공 공간을 개선하는 것이었음



로마 식민 도시의 격자가 점차 이슬람식 도시로 바뀜



• 합리적인 질서가 잡히고 공공행정이 들어서면서 로마 시대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해체 → 이유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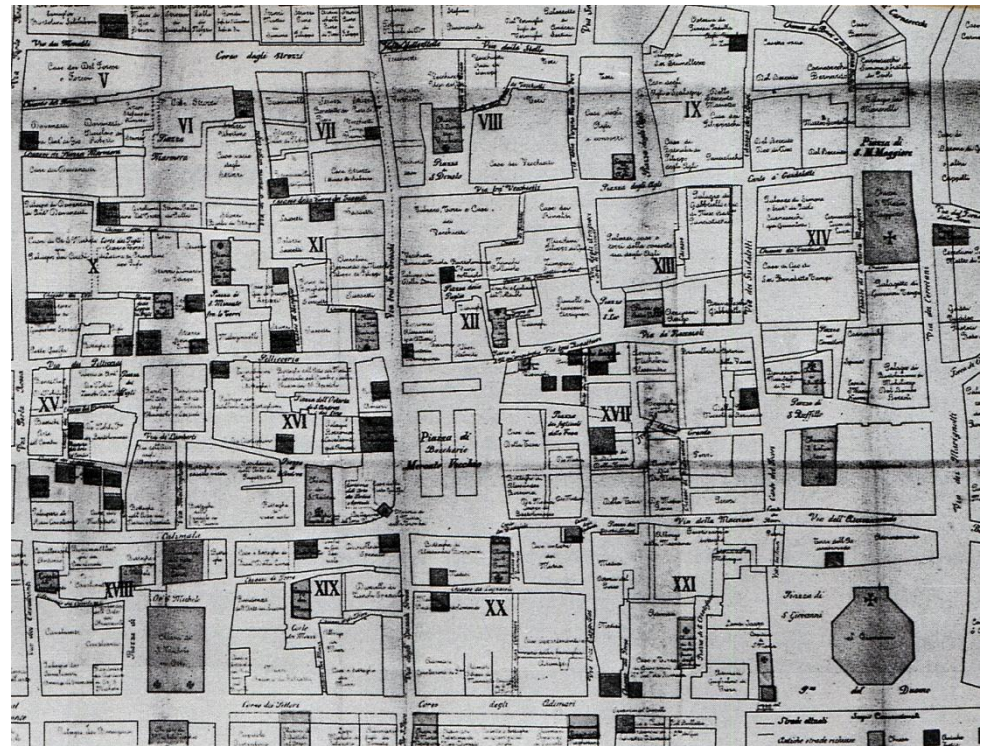
### ③ 도시 구조에 새로운 공공의 중심을 충격적으로 만드는 일

• 시민의 입장에서 지형에 따른 동선의 계층구조를 설명하자면, 격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서양에서 로마의 포룸과 교황궁과 성당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중세 시장이 들어선 경우 언제나 도시의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혼란을 최소화함

• 메리다의 미로는 한 때 로마의 계획도시였음 (로마가 부활했다고 격찬하는 역사도시)

• 도시가 계획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공식에 만족하지 말고, 도시의 형태가 변동이 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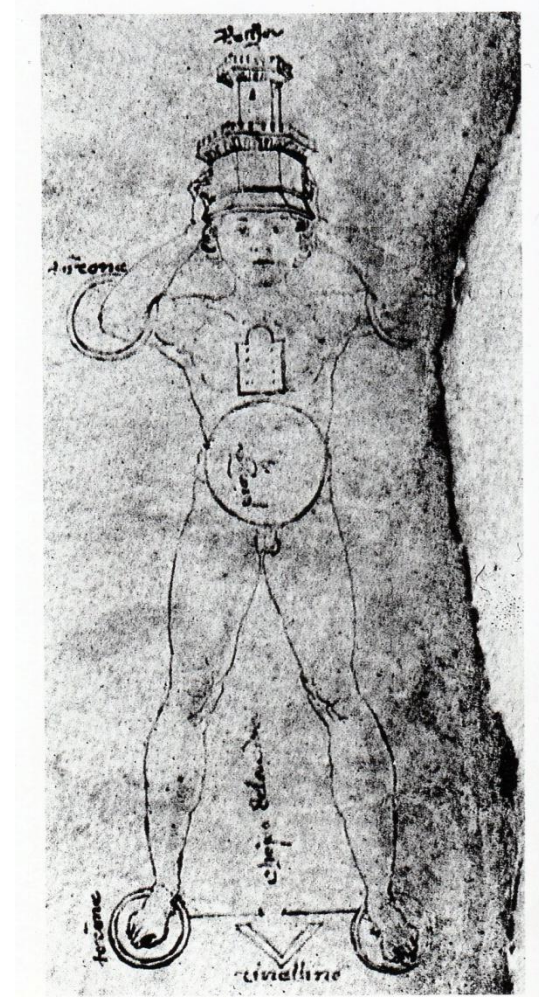


프로렌스(이탈리아), 중세에 변화된 로마의 격자가 1427년 지적도 평면에서 여실히 보임

- 그 형태가 제멋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계획되지 않은' 도시는 없음
- 권력 : 도시를 설계, 권력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가 토지를 규제
- 서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늘날의 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도시의 역사에서 전체주의적 설계는 제한적으로 실험될 수밖에 없었음
- 도시의 토지는 여러 힘이 공유하여, 도시의 형태가 다듬어지고, 디자인은 계속 변하게 됨
- 세상에 똑같은 도시는 없음 -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숫자만큼, 그런 특징을 가진 다이어그램이 많이 있음

## I 유기체로서의 도시

- 도시를 유기체로 보는 관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음 (17C 이후)
- 인간의 신체 부위와 도시의 형태를 기능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짝지움으로써 단순히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충동감을 만족
  - ex) 광장이나 공원 같은 오픈스페이스는 도시의 허파, 중심지는 혈관(도로)을 통해 피(교통)가 공급되는 심장
- 최근 :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유추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
- 구조적 논리와 질병의 원인은 '유기적' 도시의 형태와 흡사하게 됨
- '유기적' 도시에 관해서 합리적인 규칙성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공동체는 출생과 사망, 이민으로 인구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과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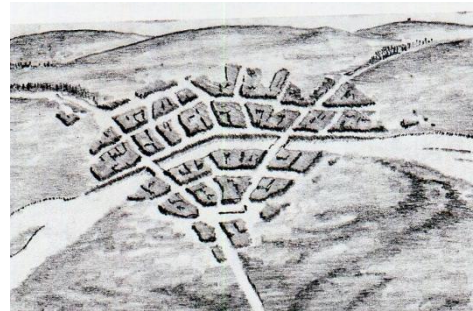


사람은 도시 형태의 전형을 보여줌  
15세기 후반, 프란체스코 데 조르조의 건축논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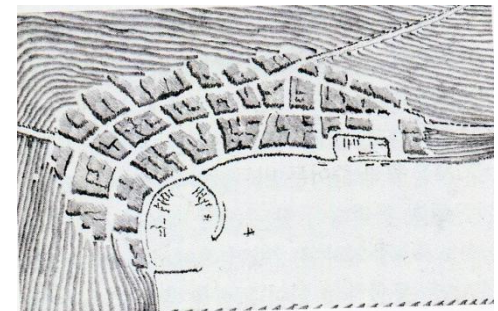
#### I 지형의 역할

- 그냥 생성되거나 생겨난 도시의 모습이 독특하게 보이는 이유
  - 자연경관, 시각적으로 가장 파악하기 쉽기 때문
- 자연 경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도시의 어느 부분에서 도시 형태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
  - ex) 이탈리아 도시들 (안전한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여러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여 입지함을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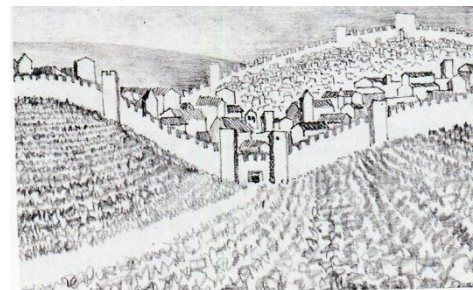
• 도시 형태를 결정짓는 인자로서 지형



강을 끼고 발달한 정주지



자연항구



방어적 입지



선형의 능선



언덕 위의 도시



경사지

## I 지형의 역할

### • 불규칙한 도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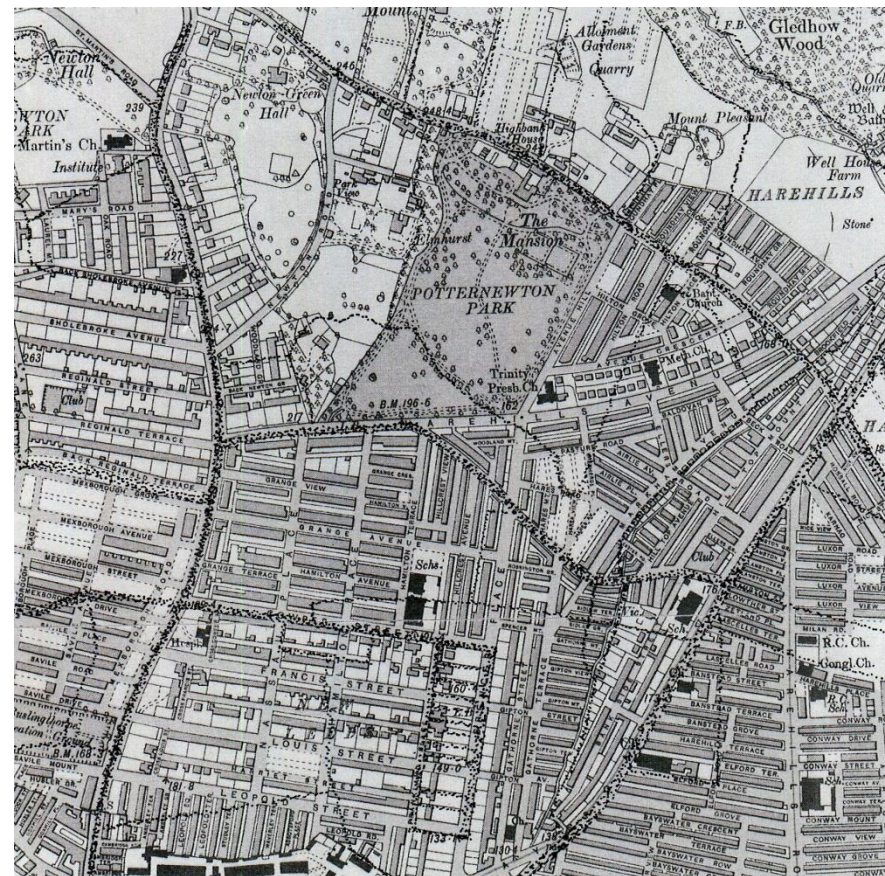
- ① 산, 계곡, 강과 같은 일반적인 지형보다 더 세밀한 지형을 읽어내야 함
  - ② 도시발생 이전에 행해진 토지분할의 주된 요인에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 함
- 늪지나 호수를 매립하여 그 위에 세워진 수중도시, 또는 운하도시라고 일컬어지는 도시의 계획안은 규칙적이지만 획일적이지 않음
- 길과 블록들은 길고 좁음, 농사용 관개수로가 운하가 되었고 농토에는 길게 늘어난 모양의 블록이 들어 섰음(수중도시의 질서)



슬로덴(네덜란드), 프라이슬랜드 주의 제방 도시가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곳에 건설되었는데 도시 중앙에 다리의 위치를 잡고 1426년에 허가를 받음  
방어용 해자로 둘러싸인 별모양의 성은 16세기 후반에 덧붙여진 것임

#### I 토지분할

- 도시가 생기기 이전의 토지분할이, 모든 시대에 도시가 불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 기본적인 결정인자일수도 있음
- 이웃한 동네와 연계하여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규칙한 '유기체' 도시가 생겨났을 꺼라 추측함
  - 상대적으로 최근 영국 농촌의 토지구획의 흔적이 흐릿하게 됨
    - (새로 생긴 도로가 제멋대로 교통을 유발시켜 인접한 교외지역에서 도시 패턴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끼쳤기 때문)
- 정주의 초기 단계 : 토지를 측향해서 생기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함



리즈 북쪽에 있는 포트뉴타운은 테라스형 주택이 들어선 블록들이 짜깁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음

## I 토지분할

- 고대 : ① 성이 패쇄적이면, 땅값이 오름  
② 도시가 붐비는 것은 고유현상임  
③ 궁궐이나 사원이 있는 곳은 금기의 땅으로 남음  
④ 나머지 다른 도로나 시장 같은 공공공간과 사유지로 나뉨
- 토지분할의 방법 ① 경계표지나 경계선으로 측정하는 방법 (유기적 패턴)  
② 적절한 도구로 측량하여 분할하는 방법 (사각형)  
Ex)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 식민주의 :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온 정주지의 척도가 되는 농촌 경관에서부터 도시 경관에 이르는 흐름을 중단기킴
- 식민지 세력은 과거 토지소유 체계를 없애버리거나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들이 지지하는 사회적 · 법적체계를 없애 버리기도 함

#### I 공동체 (시노시즘)

- 아리스토텔레스 '시노시즘' :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근처에 있는 여러 마을이 하나의 행정체제를 이루어야 함
- 최근의 연구 : 시노시즘과 다른 정주 형태가 병존했거나, 어떤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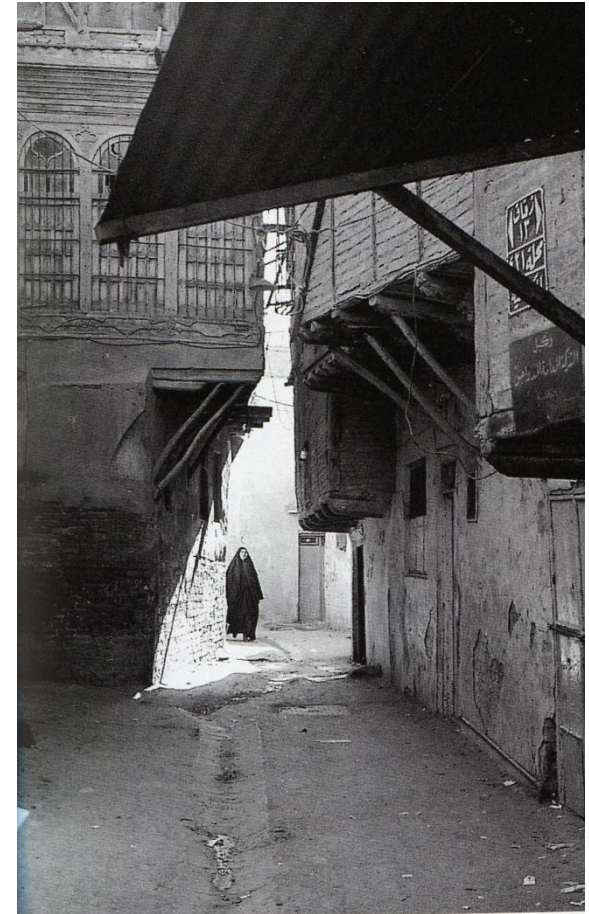
Ex) 제노제노와 쇼마, 중국 북부지방의 초기 도시인 정저우 같은 도시

- 지식계층과 사원, 그리고 궁궐이 중앙에 집중된 전산업 시대의 소버그 모델의 대안 – 최근 인식
  - 시노시즘 접근방법
    - ① 새로운 도시로 옮겨가기 위해 그들이 살던 마을을 떠나는 것
    - ② 바로 옆에 있던 다른 거주지를 없애고 합병시키거나 합쳐질 것
  - 아리스토텔레스 “여러 개의 마을이 하나의 복합적인 공동체로 합쳐질 때, 충분히 규모가 크고 자족적인 도시국가가 태어나게 된다.”
    - 영역이 하나의 단일 행정체로 결합되는 것은 마을의 공동의사결정에 따른다는 점을 시사
- 시노시즘 : 서양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도시형성과정이 아님  
농촌환경에서 발생한 마을의 가장 보편적인 기원임



## I 법과 사회질서

- 이슬람 도시의 모델 : 혈연이나 부족관계, 또는 인종에 바탕을 두고 결속된 공동체는 충분히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음
- 이슬람 이전 시대의 격자를 재구성하고, 그 격자를 용해시켜 폐쇄적인 수퍼블록 속에 집어 넣음 → 주거지 미로
- 도시에 사유화된 질서 : 풍속과 토지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이슬람 교도의 사생활을 시각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만 도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음, 허용된 사회적 행위를 위협하는 일은 금지
- 코란과 수나 : 임시구조물, 경계표지, 돌출부와 높이 · 용도 등에 관한, 지역에 대한 주석도 어느 정도 있는 포괄적인 전례집
- 근대의 산업/자본주의 도시는 의도와는 달리 무분별하게 성장함  
Ex) 리즈, 버밍엄, 브리스틀, 리버풀
- 무질서는 질서의 한 조건
  - 질서의 반대 개념
  - 무질서는 잠정적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질서를 얻을 수 있음



바그다드(이라크)의 길. 좁은 공공도로 위로 돌출된 집들이 있음

- 근대이전의 '유기적' 도시 형태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평가 X  
→ 도시란 그런 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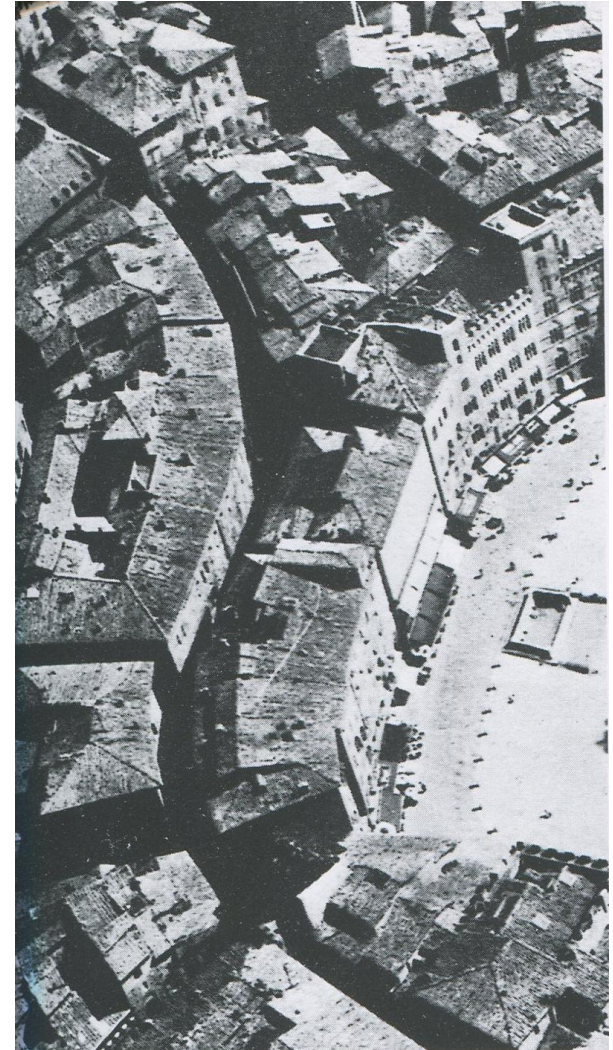
### I 알베르티(Alberti)

- 방어적 논쟁을 부활시켰으며 막다른 골목과 좁은 길이 좋다는 점을 강조
- 길을 좁고, 휘어지게 만드는 것이 건강에 좋음
- 좁고 휘어진 길로 바람이 더 잘 통하며, 모든 집에 햇볕이 잘 들고, '폭풍이 몰아치는' 힘이 약해짐
- 도시설계에 있어 '유기적' 계획이 경사지에 적합하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나, 일반적으로 작은 도시나 '성곽' 도시에 더 잘 어울림
- 원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조직된 도시 형태를 추구
-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 - 로마 격자의 의미를 상실함

### I 풍경식 계획 도시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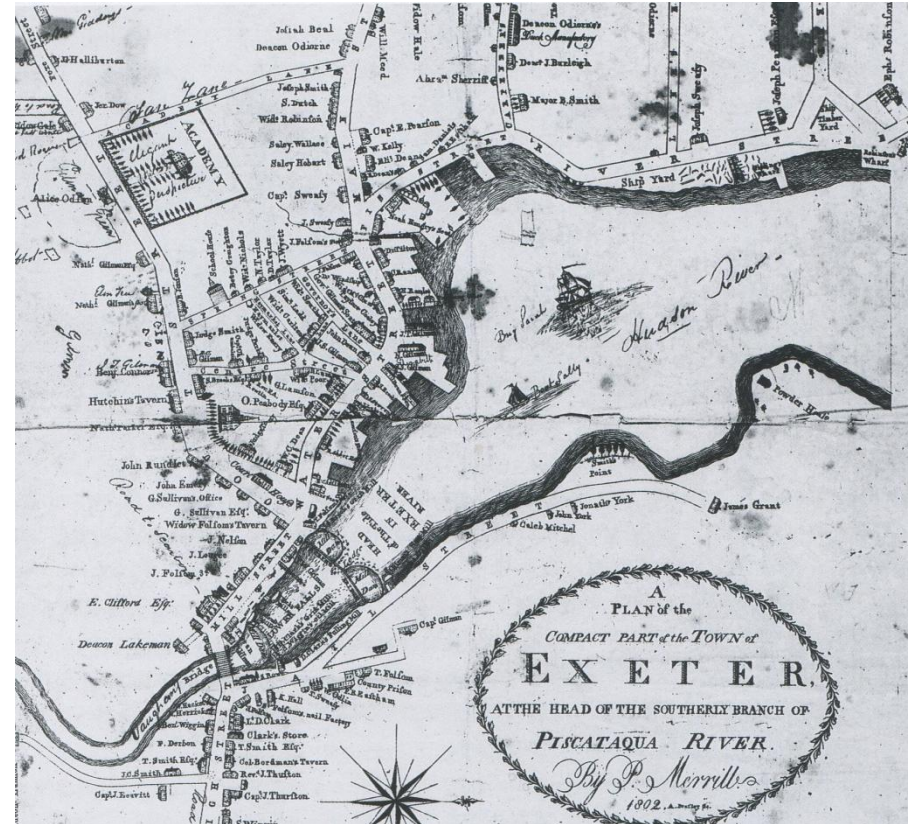
- 후기 중세 도시는 그 생긴 모습으로 알 수 있음
- 도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실제 도시를 만들 때, 길들이겠다고 생각했던 도시 경관이 이미 정열적이고 응집력 있게 구성되어 있음
- Ex) 시에나 : 르네상스 설계이론이 상처받은 이후에도 식민지의 경험 속에서만 머물렀음
- 중세의 어떤 도시를 복제한 것처럼 커져버린 퀘벡같은 도시를 받아들임
- 뉴햄프셔의 엑스터, 버몬트의 우드시터 : 불규칙한 도시 형태의 특이점을 연구할 수 있음
- 불규칙한 도시패턴 : 왜 · 어떻게 이러한 도시 형태가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몫

시에나(이탈리아) 소프라의 지선도로  
시에나의 척추역할을 하는 길고 완만하게 휘어진 모양의 도로가 고딕식 설계를 즐겨했음을 반영한다. 반대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시기의 시에나를 그린 그림이 들어있는 천으로 된 그림에서도 이렇게 굴곡이 심한 지형을 볼 수 있다



## I 풍경식 계획 도시의 기원

- 18세기 후반 : 비기하학적인 도시설계는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확고한 지지 를 얻음
-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길과 질서정연한 도로계획에 대한 신념은 르네상스 이론과 실천에 대한 반란
- 17C 데카르카 “여러 부분을 조합하거나 여러 거장들이 계획하여 도시를 만들기보다, 한 사람이 계획한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 1750년까지 전반적인 도시설계의 매력과 고전적인 건축 어휘의 권위에 대해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함
- 대안 - 비도시적인 구도를 가진 풍경식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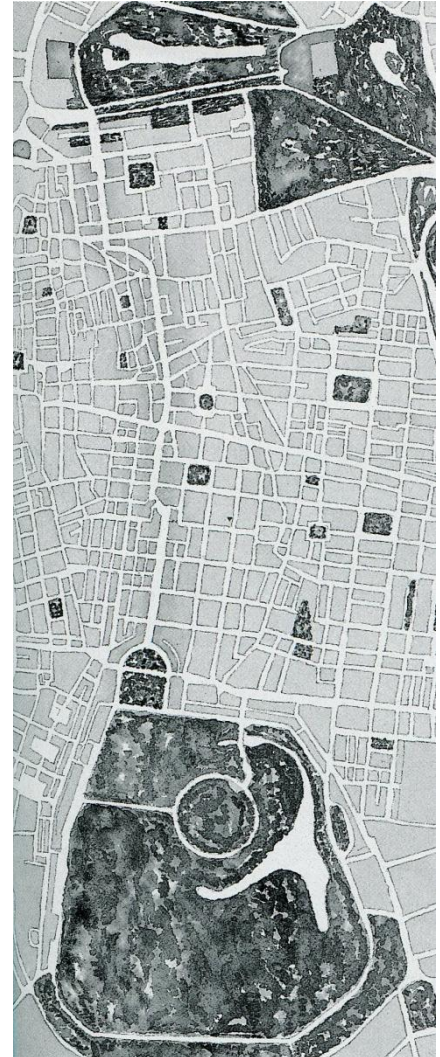


1802년 메릴의 것을 따라 조각한 엑스터(뉴햄프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유기적' 설계를 의도하는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설계에서 다양한 폭과 기하학적 형태의 길을 섞어서 만들었다.

### I 풍경식 계획 도시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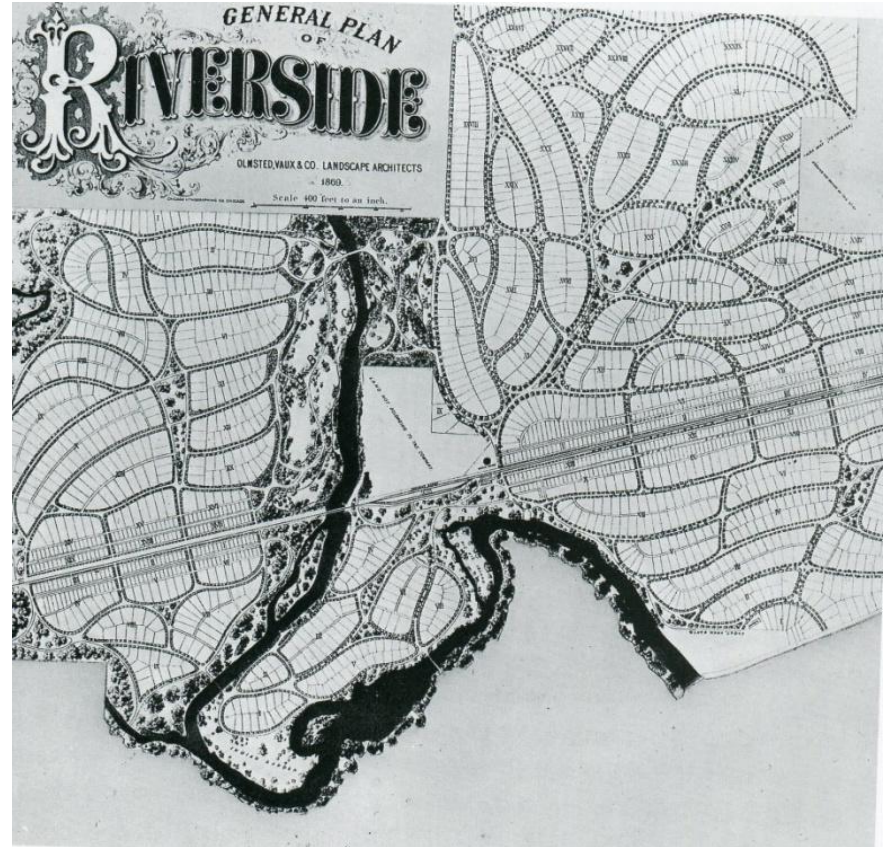
- 리전트가 : 고딕의 부활, 선동적 움직임이은 건축적으로 철저히 분석
- 풍경식 교외와 공장 마을은, 앞으로 '유기적' 패턴이 오랫동안 영향을 끼침
- 유기적 계획이 가진 아름다움을 근대에도 변함없이 좋아하게 되었음
-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의 공원 : “일상적인 도시 생활에서 받게 되는 악영향을 잘 막아주는 직접적인 치료방법이며, 사람들이 도시에서부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역할을 하는, 도시 한 가운데 있는 이상적인 농촌경관
- 도시 공원에 대한 자극은 미국 도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격자와 충돌하는데서 일어남
- 미국에서 최초로 풍경식 교외가 만들어진 것은 1851년 오하이오 주의 글렌데일 추정
- 휘어진 도로계획에 맞추어 1~2ac의 불규칙한 대지가 배치되도록 지형을 최대한 이용 함

런던의 리전트 공원과 리전트 가. 풍경처럼 비대칭적인 존 내시의 19세기 초 설계는 새로 만든 길과 기존의 길을 함께 종합적으로 짜맞춘 결과이다. 리전트 공원(위쪽)에 있는 새 왕실의 영지를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행정중심지와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계획했다. 리전트 가는 도시재개발을 위임하기 위해 왕실의 특권을 이용한 영국에서는 드문 예이다



### I 풍경식 계획 도시의 기원

- 일리노이 주의 리버사이드
  - 곡선 도로가 “휴양과 명상, 그리고 행복한 고요”를 줄 수 있으며, “좌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만 내달리게 하는 정열”을 암시하는 곧은 길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옴스테드가 설계한 주거지 개발은, 격자가 지배하는 교외의 주택단지에서는 항상 예외적인 것
- 고대와 중세의 '유기적' 패턴 :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데 섞여 있는 복잡한 틀을 가짐
- 유기적인 근대의 교외 : 폐쇄적, 교외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
- 밀도와 감각적이지 못한 기계적인 배치가 모두 부정적으로 보이는 도시 형태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여겨짐



리버사이드(일리노이 주) 교외 도시 계획, 1869. 시카고에서 9mile 떨어진 교외의 부동산 개발계획 수립을 의뢰 받았을 때, 옴스테드와 칼빈 보우는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함께 만드는 것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다

### I 전원 도시의 패러다임

• 스프롤 현상, 도시 연담화에 대한 하워드의 해결책

- ① 주식회사가 인구 3만 명이 들어설 정도의 시골 땅을 산다
- ② 집이 지어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마련
- ③ 공동체는 항상 일정한 크기로 유지되어 지고, 모든 사람은 시골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음
- ④ 도시는 자족적으로 운영되는 공장과 농장, 상업시설이 있음
- ⑤ 도시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할 수 없는 녹지대 안으로 도시의 경계선을 둘러침

• 전원도시 :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도시의 모든 이점을 가지면서, 시골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음

• 추종자 : 전원 도시는 옛 도시에 의존하는 교외가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직장이 있고 행정체계와 문화, 그리고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춘 자족적 공동체하는 것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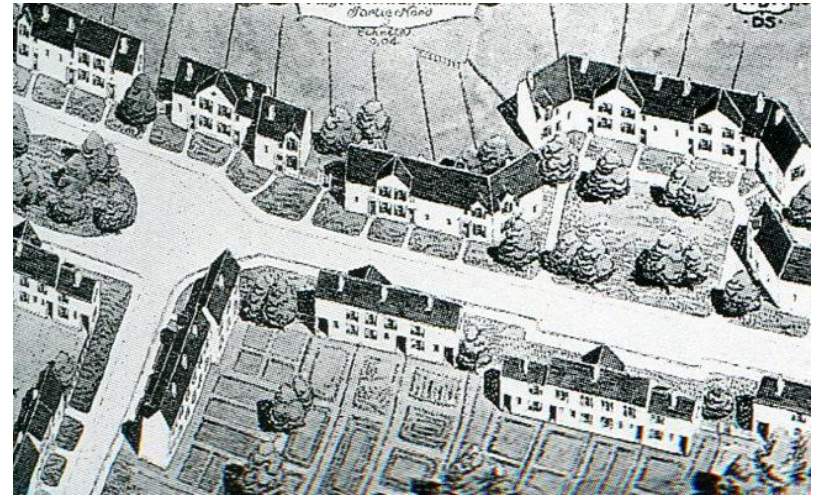
• 최초의 전원 도시 : 하트퍼드셔의 레치워스



레치워스(영국), 길과 건물을 꼼꼼하게 따져 배치하여 기존의 나무들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새로 심는 나무들은 수도와 휴양 도시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심었음

### I 전원 도시의 패러다임

- 최초의 두 개의 전원 도시 : 레치워스와 웰윈
- 보자르 도시론의 영향, 기념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으면서, 도시 중심부를 구성하는 데서 쉽사리 확인 할 수 있음
- 전원 도시가 누렸던 인기는 대단한 유연성, 즉 어떤 이념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음
- 미국에서 전원 도시의 이상을 품을 수 없었던 이유
  - 미국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공동소유 혹은 사유재산의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
  - 교통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자동차 교통에 대한 편견을 가진 거주양식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거의 불가능 (특히 1920년)
- 옴스테드의 도시 미화 운동이 도시에 준 영향은, 거의가 공원과 공원체계와 장엄한 기풍의 도시설계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도시개발프로젝트의 조경요소에 국한되어 있음



드랑시 도시 정원(프랑스) 건축가 바송비에르와 드 루테는 언윈과 파커가 주도한 10여 년 전의 영국의 전원 도시 모델을 충실하게 재현함



## I 전원 도시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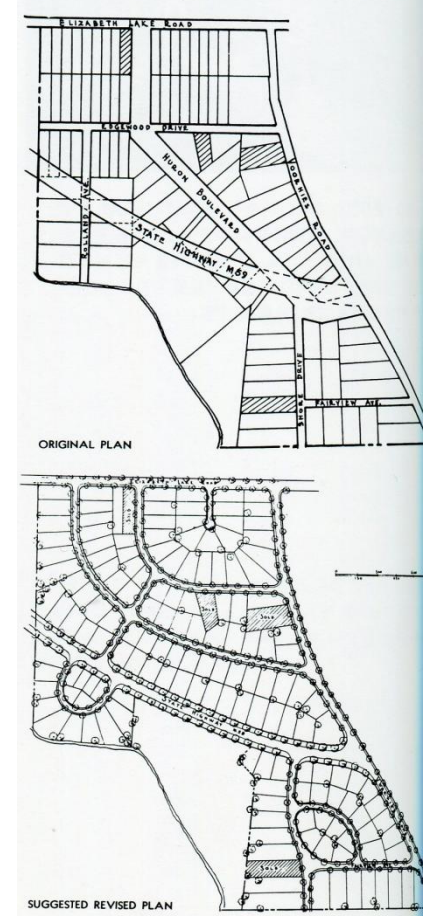
• 전원적인 교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소모적이 되었음

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방정부는 산업 노동자를 위한 주택계획을 억지로 만들어 냄 (ex) 뉴저지 캠턴의 요크십 빌리지, 델라웨어 주 월밍턴 부근의 유니언 파크 가든스, 펜실베이니아 주 체스터시의 버크먼 빌리지)

- 1928년 뉴저지의 레드번 커뮤니티를 만듦

: 인구 2만5천명, 세 개의 마을로 구성, 각 마을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격자는 거부, 각 마을은 슈퍼블럭으로 분할, 블록 간에는 보행자 전용 입체보도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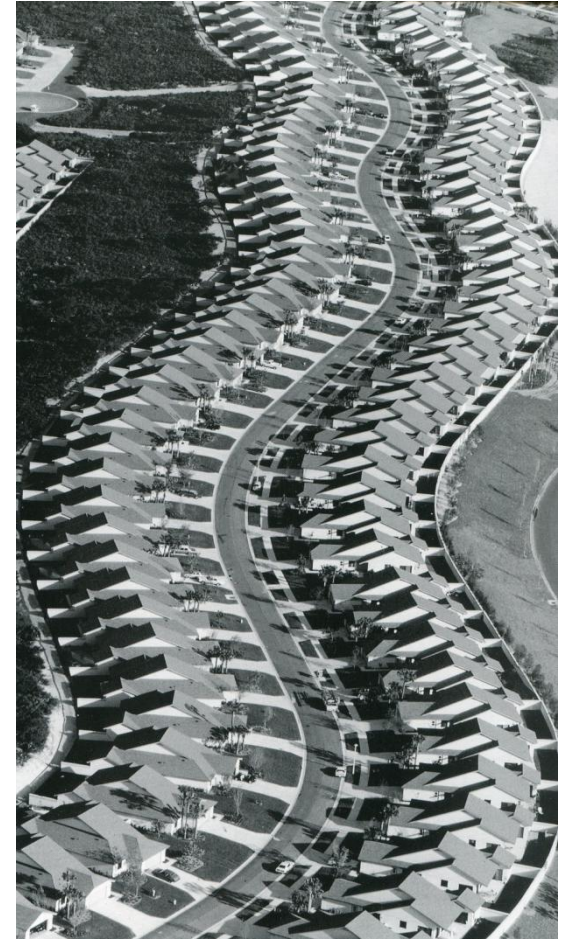
→ 전원 도시의 그린벨트 원칙은 포기, 하워드의 핵심 이론이었던 산업적 요소는 축소된 규모로 1986년까지 유지되었음



1938년의 '이익을 창출하는 주거지 계획' 안내서에 수록된 토지투기에 대한 당초의 계획과 수정된 계획

### I 전원 도시의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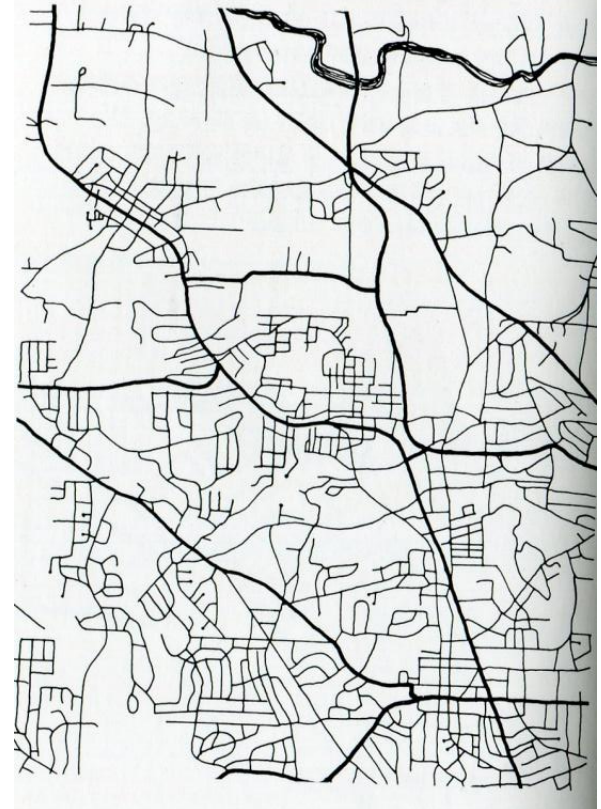
- 전원적인 교외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소모적이 되었음
- ② 연방정부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주는 대신 저소득층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모험을 감행 '그린벨트 타운'
  - 초기에는 실제로 그린벨트를 조성하였으며, 연방정부라는 이름대로 소유권을 공동으로 함
  - 대중에게 농촌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인식
  - 결과 :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만든 기본적인 가로 형태가, 사각형 격자를 별 생각어벗이 모방하던 것에서 곡선으로 변화되기 시작함
  - 확실히 늘어나는 도로교통의 양과 속도와 관계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도로패턴 선택이 필요
- 레드번은 소위 가로를 기능에 따라 계획한 최초의 도시
- 격자가로와 T-교차로를 곡선형으로 변화시킨 데 대단한 의미를 부여
-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과 영국의 뉴타운 개발계획에서 참고의 기준이 됨



팜 시티(플로리다) 1940년대 후반 대량생산 기술로 혁신적으로 계획된 교외 주거지개발임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 19C 후반 이래, 풍경식 계획 도시를 받아들인 유럽대륙 패턴  
→대륙 자체의 신중세주의의 영향
- 일반인이나 문화비평가들은 하나같이 기술관료라는 새로운 종족을 점점 혐오하게 됨
- 기술관료 : 교통기술자와 정부 관리, 동선 때문에 중요한 역사유적지를 변명도 없이 송두리째 파괴
- 오스만 남작이 기계적 효율성을 선택하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 도시에 문화적 · 사회적 · 역사적 보호막을 설치함
- 카밀로 지테의 [도시건설의 기술] 심미적 쟁점을 가장 잘 대표함
- 지테의 문제점 : 공간의 질
  - 그의 제자들은 자의적으로 교조적인 곡선형 패턴을 설계하였는데, 풍경식 교외와 도시 확장은 지테에 대한 비평의 불을 지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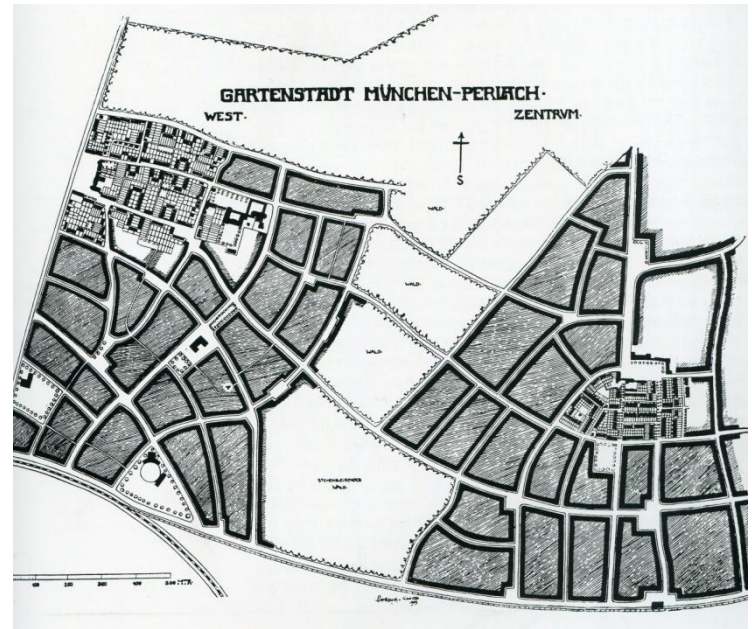
아틀란타 조지아 교외의 짜깁기식 가로망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 지테의 예는 근대적으로 도시를 확장시킨 변두리 보다 옛 도시에 더 도움이 됨
- 사소한 일을 방어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기하학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는 것 보다, 새로 개발된 지역을 근대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
-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작은 부분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용
- 근대 도시설계에서 기하학적 구조를 사용한 이유  
: 계획안이 현실화되면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대칭성을 평평한 제도판의 종이 위에 나열하는 전문가들의 습관 때문



폴 슈미트헤머가 설계한 베를린의 스타켄 가든 서버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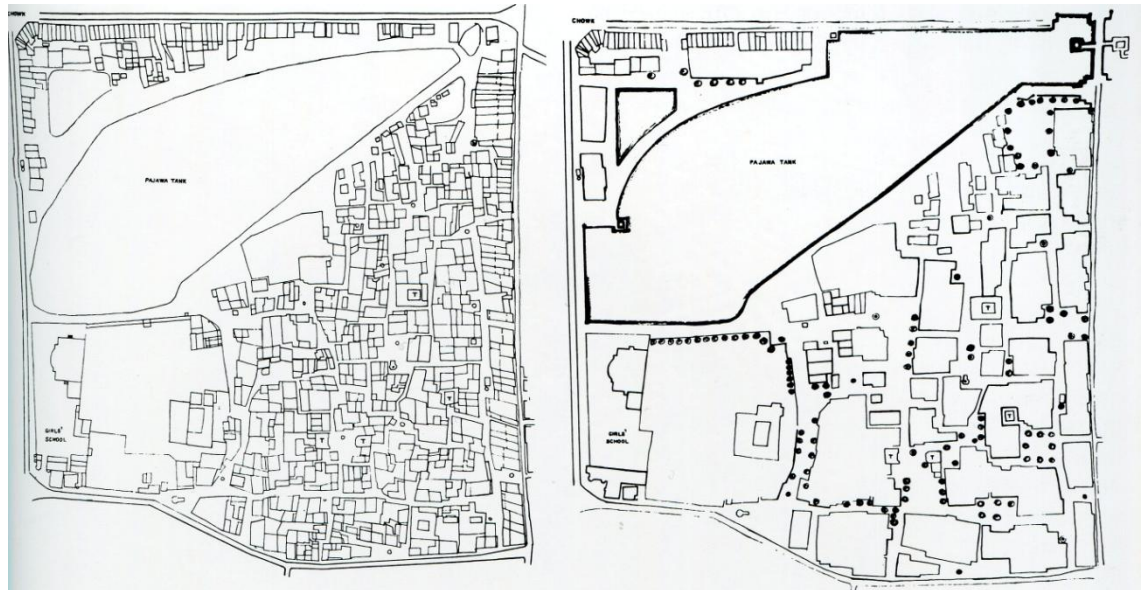


뮌헨(독일), 1909년 벌렙쉬-발렌다스가 설계한 전원적인 뮌헨페어라흐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 리요테와 그의 건축가 앙리 프로스트는 토착민과 유럽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을 위한 개발을 분리할 것을 지지
- “그 도시에 있는 도로의 선과 모양을 건드리지 않고 지구 전체를 역사적인 상징으로 생각” 함
- 패트릭 게디스 :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영국 군사계획가의 창자를 베어내는 것 같은 생각을 멈추기 위해 노력함
- 느리고, 작은 규모의, 주민이 참여하는 게디스식 접근방법은 실제 도시계획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함

발람푸르(인도), 패트릭 게디스의 발람푸르의 재개발계획(1917)  
게디스의 보수적인 수습방법은 위생문제와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면서 원주민의 주거 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음. 발람푸르 계획은 조심스럽게 도로를 확장하여 집을 적게 허물도록 하였다. 여기저기 나무 그늘이 진 초우크는 인도의 전통 도시에서 공공생활의 근거가 되는 가로 중앙의 공터를 만들어 지방의 기후와 관습을 유지하는데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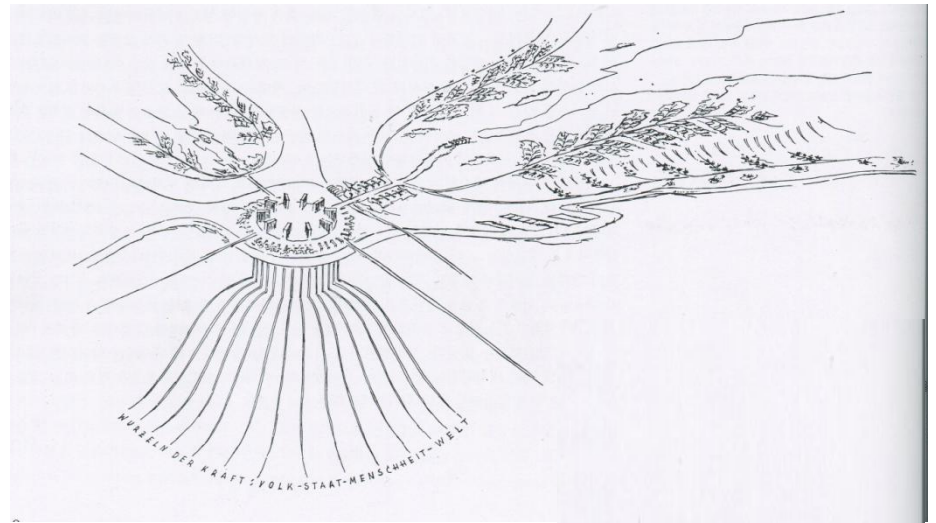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 1945년 이후 한스 베른하르트 라이초우는 오랜 경력을 통해 '유기체론' 을 발전시킴
  - 소규모 농촌 마을을 후기 산업 시대의 대도시로 '유기적' 모습을 확대시켜나가는 일을 시작
  - '비유기적 도시' 를 마치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있는 것처럼 비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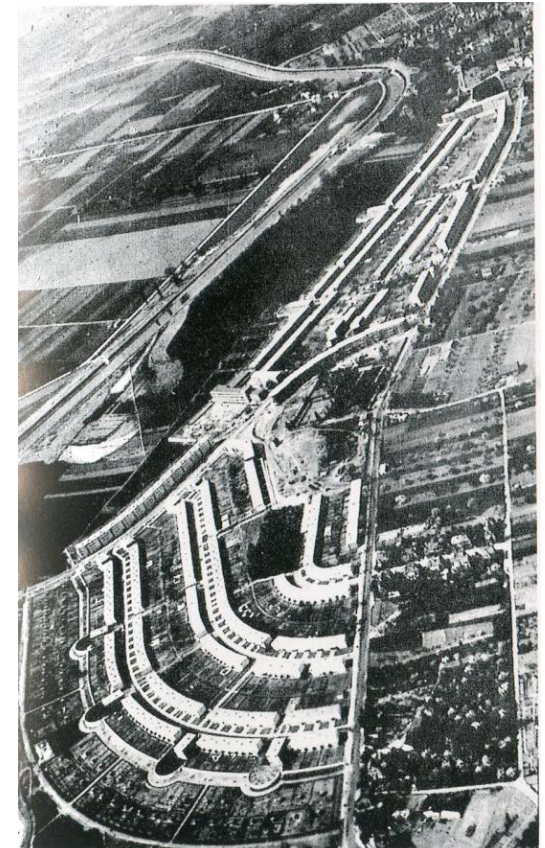
1938년의 국가사회주의 신도시계획



한스 라이초우의 '유기적 도시 경관'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의 승리자들은 계획된 풍경식 전원 도시와 그 아류, 그리고 역사적인 유럽 도시들의 풍경화 같은 모습에 대해 한동안 인정하지 않았음
- 런던의 모든 역사지구의 도로패턴은 바비칸(감시 망루) 아래에서 없어졌음
- 1960년대의 반응
  - 근대도시(모더니스트의 도시설계)에 대한 내부비판
  -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도시의 과거 기록을 되살릴 것을 지적
- ① 팀 텐이라고 알려진 젊은 모더니스트들
  - : 선배들의 거만한 국제주의에 대항하는 입장
  - : 그들 스스로를 개혁의 개척자로 인식함
  - : 도시가 '유기적 과정' 을 거쳐 형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새로운 태도를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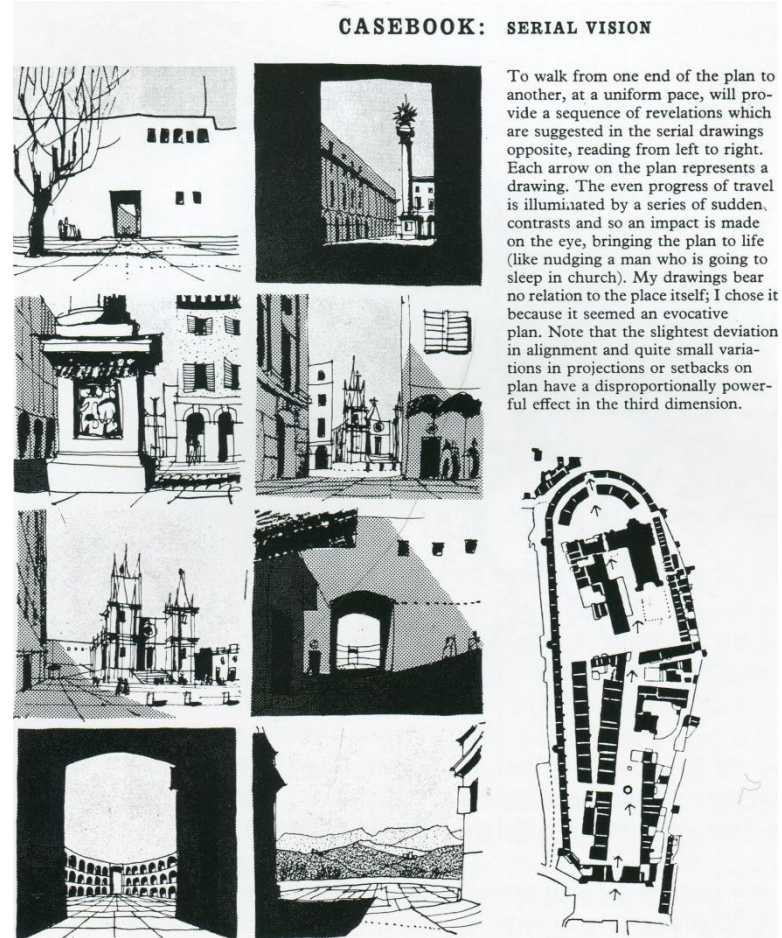
뤼머슈타트, 프랑크푸르트 부근(독일), 에른스트 메이설계 1927 ~ 1929

## I 보존과 역사의 교훈

② 역사보존을 부활시키는 것이며, '도시 경관' 의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것

: 1962년 프랑스에서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아드레 말로가 재개발의 맹공으로부터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 → 지구보호라는 개념을 세움

- 고든 컬런의 도시경관에서부터 도시경관연구가 시작됨
- 도시계획을 관계의 기술로 정의
- 인위적으로 두 개로 나뉜 도시형태를 다시 만들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함
- 패드릭 게디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적 역사주의를 유지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에 대해, 역사적·지리적 상황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CASEBOOK: SERIAL VISION

To walk from one end of the plan to another, at a uniform pace, will provide a sequence of revelations which are suggested in the serial drawings opposite, reading from left to right. Each arrow on the plan represents a drawing. The even progress of travel is illuminated by a series of sudden contrasts and so an impact is made on the eye, bringing the plan to life (like nudging a man who is going to sleep in church). My drawings bear no relation to the place itself; I chose it because it seemed an evocative plan. Note that the slightest deviation in alignment and quite small variations in projections or setbacks on plan have a disproportionately powerful effect in the third dimension.

뤼머슈타트, 프랑크푸르트 부근(독일), 에른스트 메이설계 1927 ~ 1929